



▲ 박종관 현장소장

# 협력업체와 하나된 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무재해 현장 만들어

— 롯데건설 용인동백상록 APT 현장 —

**서**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도시로 흘러 호수를 만드는 환경친화적 신도시 동백지구에 용인동백상록 APT를 짓고 있는 롯데건설(박종관 현장소장)은 현장입구부터 눈에 들어오는 꽃길에 무재해 현장임을 짐작케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주로 C6블럭과 C7-2블럭으로 두개의 떨어진 현장인 이곳은 협력업체와 하나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신개념으로 구축하고 있다.

##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관리체제 구축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박종관 소장이 처음 건설현장에 몸을 담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취월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0~50대인데 비해 최근에는 20~30대의 근로자로 교육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안전의식은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상 문제점은 협력업체 대표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협력업체 대표자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 12개 협력업체와 함께 용인동백상록 APT를 짓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이곳은 협력업체와 함께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수직하달식의 업무적 관계가 아니라 무재해 준공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안전공단과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관리체제 구축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신개념의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안전관리 지원이 바로 그 것이다.



각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KOSHA 18001에 준하는 협의체 구성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 협력업체 지원은 안전시설 등 Hardware를 기본에 깔고,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Software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건설현장 같지 않은 건설현장

현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꽃길에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꽃길을 지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LOTTE 쉽다. 요즘처럼 더운 계절 안전지역 그늘에 비흡연실과 흡연실로 구분하여 원탁테이블과 침실공간을 제공하여 현장 사람들이 편히 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롯데건설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현장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특별함은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다.

리프트를 운행하는 아줌마들을 위해 각 리프트 바로 앞에 편히 쉬 수 있도록 깨끗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잇는 안전통로는 산책길을 연상케 한다. 이 안전통로는 교육통로이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정공간으로 꾸며 놓은 것에서 안전관리자의 독특한 발상과 아기사기함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탁구장 운영, 전자동혈압계 비치, 깨끗한 샤워장 설치·운영과 현장에서 채육대회 개최 등은 분명 건설현장이면서도 건설현장 같지 않은 분위기이다.

## 안전 내실화로 무재해 현장 이룩

롯데건설은 모든 부분에 있어 KOSHA 18001을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기업이다. 그 만큼 안전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롯데건설을 굳히기 위해 용인동백상록 APT 현장이 앞장 선다.

금년 안전관리 목표를 KOSHA 18001 활성화와 자체 안전점검 내실화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분주한 한 부분에는 매주 수요일 공중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 공사팀을 경유, 최종 안전팀이 취합하여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등재·관리하고, 매주 목요일 KOSHA 18001에 준하는 안전보건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금요일 협력업체 소장이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건점검 일지에 반영하는 KOSHA 18001 안전보건활동 활성화가 있다.

한편에는 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추진하는 일일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아침조회와 현장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시정사항을 안전팀에 통보하여 신속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양호한 기구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량한 기계 기구는 적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장에서 반출시킴으로써 현장 내에서는 우수제품을 권장하고 사용되는 자체 안전점검 내실화도 있다.

이 밖에도 갯골 시공 안전관리와 타워크레인 안전작업으로 자체검사 내실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등 내실화를 통해 무재해 준공을 향한 순탄한 항해를 오늘도 하고 있다.

## 맺음말

건설현장 같지 않은 건설현장, 용인동백상록 APT 현장에 건설사람 같지 않은 박종관 소장은 감성적인 현장관리로 독특한 현장을 꾸려가고 있다. 현장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실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박종관 소장은 현장 사람들에게 정을 주기 위해 현장을 나선다.

『정을 받는 사람만이 정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박종관 소장은 따뜻한 정을 통해 안전한 현장으로 꾸려가려는 것이다. 

〈최충덕 기자〉

